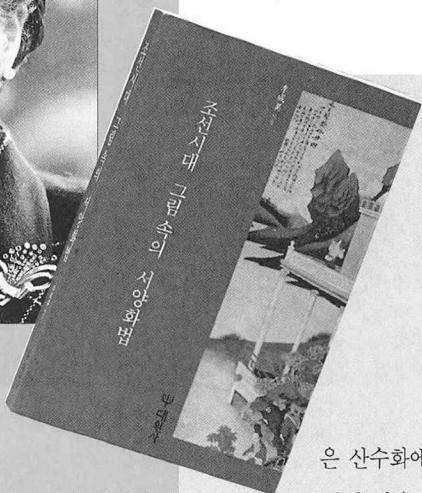




이성미 교수

대원사/A5변형/256면/14,000원



옛 그림에서 찾는 문화교류사의 흔적

《조선시대 그림 속의 서양화법》 펴낸 이성미 교수

18세기 이후, 조선의 회화에는 서양화법이 나타난다. 당시에 제작된 산수화와 인물화에서 사실적인 묘사법과 대기원근법이 적극 활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연행사를 통해 중국에서 유입된 서양화법은 이후 본격적으로 발달하지는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당시의 지식인들 대부분이 직접 그림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우리 옛그림에 서양화적 기법이 배어있다는 사실은 낯설다. 동서양의 문화교류가 다양한 차원에서 복원되고 있지만, 회화에도 그런 영향관계가 있었다고는 생각치 못한 탓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찍부터 이같은 사실에 주목했다. 조선 후기 회화발전사에 한 전기를 마련한 것이 바로 서양화적 기법이었기 때문이다. 신광현의 <초구도>(超狗圖), 작자미상의 <맹견도>(猛犬圖), 강희언의 <도화동에서 본 인왕산>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들 작품은 동서양의 문화가 한 화폭 위에서 교차하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성미 교수(6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가 펴낸 《조선시대 그림 속의 서양화법》(대원사)은 18세기 이후의 조선시대 회화에 서양화법이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비교사적 시각에서 살핀 책이다.

산수화와 인물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서양화는 사실감이 두드러진다는 점과 광선을 효과적으로 처리해 입체감을 높였다는 것이 특징이죠. 신광현의 <초구도>는 광선이 비추는 방향을 일정하게 설정해 입체감을 극명하게 표현했습니다. 개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생생하게 묘사된 <맹견도>는 서양화법의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죠. 강희언이 그린 <도화동에서 본 인왕산>은 하늘을 푸른색으로 칠했습니다. 이전의 조선시대 산수화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예죠.”

조선시대 화가들에게 영향을 끼친 서양화법

은 산수화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원근법의 활용이 그것인데, 이전의 그림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해진다. 16세기 중기의 그림인 <궁중승불도>(宮中崇佛圖)나 <독서당계회도>(讀書堂契會圖)는 평행 투시법에 기초해 그린 작품이다. 건물들의 면을 나타낸 선들이 서로 만나지 않은 채 평행으로 표현돼 있다. 하지만 18세기 후반, 조선의 화가들은 원근법을 그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다.

“광화문 대로를 그린 강희언의 <북궐조무도>(北闕朝霧圖)는 뒤로 멀어지며 점차 좁게 보이는 대기원근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수록 대로 양쪽에 늘어난 나무들과 오가는 사람들이 점차 작아지고 있죠.”

산수화뿐 아니라 인물화와 초상화에서도 서양화법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숙종대에 그려진 초상화와 인물화는 한쪽 뺨을 어둡게 하는 서양화의 명암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영묘화도 마찬가지다. 변상벽이 그린 <묘작도>(猫雀圖)와 김홍도와 강세황이 합작해 그린 <송하맹호도>(松下猛虎圖)는 털끝 하나 까지도 그대로 그려내는 서양화의 치밀한 묘사법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시대 후반 일부 지식인들은 중국을 통해 서양문물을 접할 수 있었다. 연행사(燕行使)나 이들을 따라갔던 문인들이 남긴 연행록(燕行錄)에는 연경 천주당(天主堂)의 벽화나 건축양식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다. 또한 이 익, 정약용, 박지원, 박제가 등과 같은 실학자들이 서양그림을 보

고 남긴 글은 당시 조선의 지식층이 서양문물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다.

서양화법이 본격적으로 발달하지는 못해

“이들 실학자들이 서양 그림을 보는 눈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박지원이 문학적이며 감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반면 홍대용이나 정약용은 상당히 과학적인 눈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실제로 그림을 그리지는 않았습다. 정약용 역시 그림을 그리기는 했지만 문인화의 전통을 고수했죠.”

이처럼 18, 19세기의 지식인 대부분이 직접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는 점은 서양화법이 본격적으로 발달할 수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기도 하다. 이교수는 서양화법이 하나의 선택사항이었지 회화관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만한 파괴력은 없었다고 강조한다. 박제가처럼 신진 학문의 수용에 앞장섰던 학자도 여전히 문인화적 전통을 고집한 수묵화에 머물렀음이 이를 증명한다.

“서양화법을 수용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고유의 화법에서 좀더 진실한 자기표현 방법을 찾으려 했다는 것은 뜻 깊은 일입니다.”

이교수는 얼마전 틈틈이 써왔던 건축답사기를 모아 《내가 본 세계의 건축》(한국건설산업연구원)을 펴냈다. 하지만 이제는 그동안의 ‘외도’를 접고 전공으로 돌아가 ‘진찬진연의계’ 연구에 매달릴 작정이다. - 최갑수 기자